
공공기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한 원가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 -별정우체국을 중심으로-

박성종*, 한경일**

The Study of Rationality for Public Organizations' Cost Allocation Method

Sung-Jong Park*, Kyung-il Ha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인 별정우체국의 원가산정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산정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간 산업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올바른 원가산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원가산정 방법으로는 별정우체국 1국마다 평당 임차료를 산정해서 별정우체국의 전체 임차료를 산정하고 별정우체국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경비율, 표준감가상각비를 이용하여 인원별, 면적별 등으로 단위당 원가를 산정하여 총원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서비스별로 배분하면 적절한 원가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별정우체국, 표준원가, 공공기관의 원가산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tionality for public organizations' cost allocation method through the case of special post offices. The proper use of allocation method is crucial to promote and nurture the public organization sector. On that note, this paper presents how to apply the proper estimation method.

The cost allocation method is to split the total expense into appropriate services and departments. Using the basic expense rate and the standard depreciation rate and area at each post office, the total cost is calculated into the cost per person and area. As a result, the correct cost can be assigned through allocation per according service unit.

Key Word : special post office, standard cost, cost evaluation of public organization

1. 서론

우리나라의 우정사업은 그동안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영체제로 운영되어왔다. 그결과 공공적인 측면이 매우 강조되어왔고 우정서비스는 국민이 접근하기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그러나 인터넷, 무선전화서비스등 대체적인 통신수단이 등장하였고 점차 보편화 되어감에 따라 우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이러한 시류의

흐름은 그동안 공공성을 강조한 우정서비스 전체에 대하여 합리적인 경영방식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합리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정보가 바로 원가정보이며 정확한 원가정보가 산정되어야만이 향후 정확한 정책이 설정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본 논문은 주저자인 박성종의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제1저자)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교신저자)

논문접수: 2012년 8월 10일, 1차 수정을 거쳐, 심사완료: 2012년 9월 12일

는 공공서비스의 한 분야인 별정우체국의 원가산정에 방
 법론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별정우체국의 특성

2.1 별정우체국의 이해

별정우체국은 일반우체국과는 다르게 일반 공무원 조
 직이 아닌 일반인에게 공무원의 대우를 해주는 특정조직
 이다. 별정우체국의 설치로 일면 일국이 달성되었으며,
 별정우체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에게는 별정우체국장의 신분은 물론 별정우체
 국장의 승계,추천국장제도,직원채용권등이 주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1]

- 가. 주로 일반우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읍면단위
 의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나. 국장은 지정신청인 중에서 선발한 피지정인이나
 피지정인이 추천하는 자를 임명하고, 국사는 별정
 우체국장이 국운영을 위해 무상으로 제공한다.
- 다. 일반우체국과 기능 및 업무는 동일하고 인건비와
 기본운영비는 동일하나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등
 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임대료 보전을 위해 우편
 및 금융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다.

별정우체국은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
 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또는 시설을 갖추어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① 국장이 청사, 기타시설 제공
- ② 국장 승계권 인정
- ③ 피지정인 추천국장 추천권 인정
- ④ 국장의 직원 임명권 부여
- ⑤ 국장의 사회활동 허용 (경제 및 정치 활동)
- ⑥ 청사 사용 무상제에 따른 업무취급수수료 및 우체
 국 운영비 지급

별정우체국은 별정우체국법(법률 제5602호)에 설립근
 거를 두고 있으며,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우체국을 설치
 운영하여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체신

부 장관(현 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
 으로 청사 및 기타시설을 갖추고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체신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즉, 별정우체국
 은 정부의 투자 예산 부족으로 농어촌 지역에 보편적 서
 비스(Universal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해, 우편 창구망
 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민간자본을 동원하여 우체국
 을 설치한 것으로, 농어촌 지역에 각종 우편 및 체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61년도에 입법화 되어 설치
 운영되어 왔다. 1962년 체신사업 5개년 계획(1962-1966
 년)의 주요 정책중의 하나로 1면 1국 설치계획이 실시되
 에 따라 800여개 면에 별정우체국이 설치되었다. 이후
 1966년을 기점으로 별정우체국의 신설이 중지되었으며,
 별정우체국이 일반우체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정우체
 국의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05년 11월말 현재 770개국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사송업체 등과의 경쟁심화, 국민의 우
 편서비스 질에 대한 기대 상승, 우편사업 운영체제의 변
 화, 우편창구활동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향상,
 시장원리에 의한 사업경영의 강조 등과 같이 최근 우편
 사업을 둘러싼 외부환경과 내부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
 고 있다. 또한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장의 승계가 가능하
 여 사실상 폐국등 조직의 유연한 관리가 어려우며 공무
 원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임금의 고정적
 지급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급속한 경영환경 변화에 적절
 히 대응하기 어렵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별정우체
 국의 경영수지는 2004년 기준으로 400여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이 된다.[2]

이러한 이유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 ① 우편사업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정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우편창구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에 대한 효율적인 운
 영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② 우편창구업무의 전산화 및 간편화로 인해 우편창
 구업무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한 새로운 표준원가
 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우편서비스별 원가분
 석을 통하여 사송업체와 경쟁심화, 우정사업의 사
 업성 강조 등과 같은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고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새로운 원

가산정체계의 정립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 ③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우편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적절한 별정우체국의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 총원가의 산정

3.1 원가산정 방법론

별정우체국의 총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실제원가계산방법과 표준원가계산방법이 있다. 실제원가계산방법은 별정우체국이 기록한 회계자료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실제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총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는 회계 및 원가계산시스템의 신뢰도가 높고 자료의 산출이 합리적이라는 가정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표준원가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데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에서 당연히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원가로 사전에 각 원가요소별로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연구에서 별정우체국의 총원가산정방법은 표준원가계산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표준원가 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작업활동 및 시간측정기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미시적인 동작연구

무비카메라등을 이용하여 고정된 위치에서 수행되는 반복적인 작업의 동작을 자세히 기록하는 방법이나 종업원사기에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으며 비용면에서의 제약이 있다.

② 시간연구

업무단계를 파악하고 해당 단계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각 우편종별로 각 활동 내에서 작업을 완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에 기초하여 각 작업별 표준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시간연구는 비교적 짧은 주기와 몇몇의 작업자가 있는 적당한 양의 작업에 특히 적절하다.

③ 공학적 작업분석

항공우주산업에 종사하는 공학자, 프로그래머, 기술자

를 위한 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던 방법으로 전형적으로 긴 업무주기를 가지며 높은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활동과 상당한 정신적 노력과 판단을 수반하는 활동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상기 방법 중 본 연구에서는 표준작업시간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공통부분이 매우 높은 작업활동에서 각각의 원가계산대상서비스에 대한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고 이러한 업무의 순환주기가 짧은 경우에 적합한 Time Study 방법을 적용하여 우편서비스별 처리시간을 총원가의 우편서비스별 배부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우편서비스의 주요활동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우편서비스의 주요활동[4]

상위활동	최하위활동
접 수	① 방문소포접수 ② 우체통수집 ③ 접수공통 ④ 창구접수 ⑤ EMS방문접수 ⑥ 마케팅활동 ⑦ 우편창구접수관리 ⑧ 무인창구접수관리
우편사업공통	① 동력설비유지보수 ② 우편사업공통
발 착	① 소포기계유지보수 ② 통상기계유지보수 ③ 소포발송 ④ 소포도착 ⑤ 특수통상 발송 ⑥ 특수통상도착 ⑦ 일반통상발송 ⑧ 일반통상도착 ⑨ 발착공통
집 배	① 배달 ② 배달결과 입력/정리/부가 ③ 사서함우편물 구분 및 교부 ④ 순로구분 ⑤ 지환우편물 정리 ⑥ 집배공통 ⑦ 집배원 우체통수집 ⑧ 집배원(구)별 분류 ⑨ PDA스캐닝 및 배달증작성

3.2 원가의 산정기준 및 절차

별정우체국의 운영에 필요한 원가요소를 인건비, 임차료, 감가상각비, 경비의 4가지로 구분하여 표준원가를 산정하고 표준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하여 총원가를 산정한다.

$$\text{총원가} = \text{인건비} + \text{지급임차료} + \text{감가상각비} + \text{경비}$$

총원가의 구성요소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인건비

별정우체국의 경우는 공무원조직과 같이 인력의 충원 및 감소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의 경우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공무원에 보수에 준하여 인건비가 지급되며 이러한 인건비는 수익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별정우체국에 지급되는 인건비는 삼일회계법인의 용역보고서의 2001년 세출항목 실태조사에서 원용하였다.

② 표준임차료

별정우체국의 경우는 자기의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산정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지역별 평당 임차료 자료를 입수한 후 이를 별정우체국의 평당 임차료로 보고 임차료를 산정하는 유사사례비교법을 이용한다. 이 방법은 임차료 감정평가시에 사용하는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우체국의 국가기관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별정우체국과 운영 및 제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민간 기업의 형태에서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가까운 일본의 우체국 운영사례를 보면, 별정우체국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정우체국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특정우체국 제도는 별정우체국 제도의 토대가 되었으며 기본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특정우체국은 국장 및 직원의 신분적 지위가 공무원이고 취급수수료 대신 국장소유의 국사를 사용함에 따른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우체국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별정우체국과 가장 유사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우정공사가 특정우체국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는 임차료에 대한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특정우체국의 임차료 계산방식[4]

Min [A, B]

A :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적산법에 의한 임차료
(①+②+③)

① 건물분 = 대상건물가액 * 이자율+감가상각비+수리비+관리비+화재보험료

② 토지분 = 대상토지가액 * 이자율

③ 세금분 = 토지 및 건물의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

B : 일본우정공사가 지역마다 설정한 상한 또는 실제로 필요한 공사비

③ 표준감가상각비

별정우체국이 국운영을 위해서는 일반 주사국과 동일한 품목과 수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별정우체국 자체구입장비에 대한 품목 및 수량을 추정한다. 내용연수의 경우 체신관서 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였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정액법을 기본 감가상각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우정사업의 성격상 정액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체신관서 고정자산분류 및 내용연수표 상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이 적절하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정액법을 기본 감가상각방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우정사업의 성격상 정액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비품의 경우 우체국의 대부분의 비품이 소모품의 성격이 있을 정도로 소액이고 중요하지 않은 품목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품목들은 감가상각비를 반영시키기 보다는 운영비용으로 취득시 바로 비용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표준경비

표준경비는 별정우체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로 식대, 보험료,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통신비, 소모품비, 비품비, 수선유지비, 건물관리비, 신문대금 등이 있다.

4. 총원가의 배분

4.1 총원가 배분의 체계

별정우체국의 경우는 우편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즉 우체국예금등과 관련된 예금 업무와 우체국 보험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우체국 1개소당의 원가를 산정할 경우 우편서비스만의 원가가 아닌 전체의 원가가 산정될 것이므로 원가를 배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4.2 사업별 비용의 배분

4.2.1 보험비용의 제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체의 비용에서 보험비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전체비용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야 한다. 비용은 크게 나누어 인건비 및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건비의 경우는 보험비용을 제외하기 가장 적절한 기준은 활동량에 따른 분류가 될 것이다.

활동량으로 보험해당비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활동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활동자료를 PPSS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현실적으로 공개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사무원의 활동 중에서 보험이 차지 하는 비율을 우정사업본부 결산보고서(2004)상의 원가비율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결산보고서의 원가자료는 PPSS시스템의 활동량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은 활동량자료를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이용하여 활동비율을 산정할 수가 있다.

$$\text{보험분노무비} \div \text{총노무비(집배부문제외)}$$

위의 산식에서 결산보고서상의 총노무비에서 집배부문을 제외한 이유는 별정우체국은 집배업무를 하지 않는 국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장의 인건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별정우체국장들이 사업공통,우편공통,금융공통으로 분류를 하여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공통으로 입력되어 있는 활동량에서 보험부분의 비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별정우체국장이 보험에 예금보다 평균1.5배의 시간을 더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는 보험의 경우가 예금의 경우보다 실적달성의 압박을 더느끼고 있는점과 보험모집이 예금모집보다 상품의 특성상 까다로운점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용등은 국장의 활동률 및 일반사무원의 활동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여 최종적인 비율을 산출 가능하다.

4.2.2 우편사업과 예금사업 비용배분

보험비용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남은 비용은 우편사업과 예금사업비용의 총합이 된다. 우편비용과 예금비용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기타운영비등으로 합쳐져 있는 이유로 인하여 활동량에 따라 분석을 하여야 한다. 취급수수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편취급수수료와 예금취급수수료가 나누어져 있기는 하나 우편취급수수료라 하여 우편으로 인해서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예금취급수수료라 하여 예금으로 인해서만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활동량에 따라 안분하는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¹⁾ PPSS활동량을 기반으로 작성된 결산보고서에서 우편사업의 원가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text{우편사업의 총원가} \div \text{우편사업 및 금융사업의 총원가}$$

원가비율을 앞의 식과 같이 도출하면 49%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경우는 거의 총원가에서 같은 비율을 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별원가는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을 같은 비율로 분리하고 금융사업 원가에서 보험비용 제외분을 제외하면 금융사업의 원가가 산출된다.

5. 결과 및 한계점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우정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되는 국가의 기간산업이다. 이러한 기간산업을 육성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올바른 원가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별정우체국 1국마다 평당임차

1) 별정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편과 예금취급수수료를 받고있다.

료를 산정해서 별정우체국의 전체 임차료를 산정하고 별정우체국의 위치에 따라서 기준경비율, 표준감가상각비를 이용하여 인원별, 면적별 등으로 단위당원가를 산정하여 총원가를 산정한 다음 이를 서비스별로 배분하면 적절한 원가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산정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에 한계점도 있다.

우선 전체적인 별정우체국만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충분치 않고 채택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문헌연구와 대체적인 자료를 이용하여서 원가를 산정하였다. 또 별정우체국이 국장소유의 건물을 이용하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므로 국장 개인의 투자보수 등 기회비용의 산정을 해야 했지만 이는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 할 수가 있고 명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논리적으로 입증하기가 난해한 관계로 이를 연구 시 배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이 의의를 갖는 것은 그동안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료를 어떤 형태로 수집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던 것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게 하는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정우체국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표준화를 시키고 모든 별정우체국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위당 원가를 산정한다면 더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국별로 원가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별정우체국제도는 그동안 국가의 통신산업에 있어서 시대적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 전화나 인터넷이 없던 읍면지역 등에서 오랜세월 유일한 통신수단의 역할을 해왔다. 아직도 도서 산간 그리고 외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별정우체국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또한 합리화라는 미명하에 이러한 공헌이나 공공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우정사업의 근본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계속적인 개혁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의미도 퇴색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정사업은 앞으로 합리적인 원가산정을 통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합리성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적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폐국시키거나 원가절감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자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구조조정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고 원가절감도 고정비와 변동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수지개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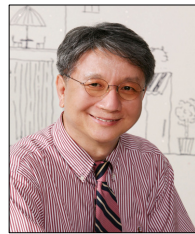
- [1] 삼일회계법인, 2001, 별정우체국 수수료체계 개선 연구용역보고서
- [2] 삼정회계법인, 2003, 별정우체국의 적정수수료에 관한 연구
- [3] 한영회계법인, 2004, 우편취급소의 수수료에 관한 연구
- [4] 한영회계법인, 2005, 별정우체국 수지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연구

박성종



- 2001 : 성균관대학교(경영학사)
- 2006 : 고려대학교(경영학석사)
- 한국공인회계사
- 전) Ernst & Young 한영회계법인 금융사업본부 근무
- 현)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회계정보시스템
- e-mail : sjpark@anyang.ac.kr

한경일



- 1982 : 한국외국어대학교 불어과 (문학사)
- 1986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99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 1987~1992 : 쌍용컴퓨터 SIS컨설팅 그룹 수석컨설턴트
- 2000~2001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초빙교수
- 2005~2007 : 디지털정책연구 편집위원장
- 2002~현재 : 안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보시스템의 성과측정, e-learning, e-government, 회계정보시스템
- E-mail : kihan@anyang.ac.kr